

2021 □□□□□□



2021 문화포럼
 2021 문화포럼
 2021 문화포럼
 2021 문화포럼





인천문화포럼에서는

인천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모여
문화권 확대를 위해 토론합니다.

2017년 결성 이후,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고
올해는 네 개의 커다란 주제 안에서
문화예술에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들여다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살아봐 좋아~

인천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시민문화력을 높이는 방안과 자부심을 찾아봅니다.

문화부시장이
필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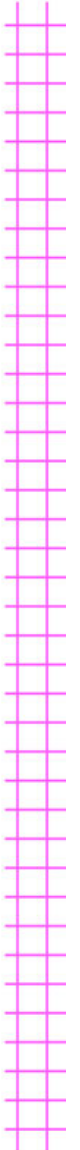
문화가 별개인가?
우리 삶이 나아지려면
모든 곳에서 '문화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부시장의 등장이 가져올 내일을 그려보아요.

문화매개자는
이슬만 먹고 산다.

문화매개자를 배고프게 하는
이 가로막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시민문화도 자라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인천에
바다가 있어?

인천! 하면 바다! 도 떠올라야 하는데,
많이 잊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다가 일상에 스며들 수 있을까요?



예술 지원 탐사단

다양한 예술 지원 정책을 추적하며
여기저기 산재한 문제를 발굴합니다.

문화 공간
탐사일지

문화 공간은 다양해지는 반면
공간 운영자의 삶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추적하러 떠나봅시다.

선정,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피 튀기는 지금의 선정제도.
하지만 예술은
'경쟁이 아니라 감동이에요.'

예술, 지원을 넘어
'투자'로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행사...
지겹지 않나요?
우리, 좋은 예술은 더 크게 보자고요!

탐사 지도
비교하기

전국의 예술지원 제도에서
과연 인천은 어디쯤 와 있을지,
그 지형도를 펼쳐 보았습니다.

청알못 시름x씨름

청년 문제에 있어 비전문가인 우리가
인천 청년 문화에 대해 함께 시름하고 씨름합니다.

인천에서
나고 자라면
인천 청년 맞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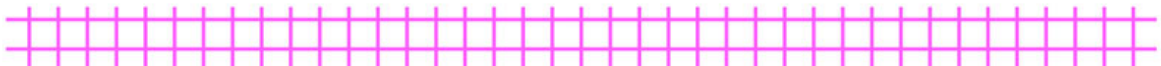
인천에 살지만
서울로 출근하고 퇴근 후엔 넷*릭스.
그래도 우리 '인천 청년' 맞나요?

젊은이들은
건강할까?

“젊으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이십대면 뭐...”
이런 이유로 밀려난 청년의 '건강권 보장'
이제 신경써야 할 때!

품의가 품위를
지켜주나요?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이제 막' 진입한 청년들이
맞닥뜨리는 행정언어.
그 낯선 어려움을 파헤쳐봅시다.





인천 문화, 아카이빙?

아카이브를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쉬어 인천을 돌아봅니다.

그 많은 ~~상~~
아카이브는 누가
다 먹었을까?

여러분의 역사가
여태 잘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잠시만!
기록이 '잘' 되고 있긴 한 거예요?

유용한
아카이브를
만든다면,

그래서 '아카이브' 그거...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 것이죠?

광활한, 좁고
깊게 진동하는
아카이브

지금까지 아카이브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해 보자고요!
이름하여, '아카이브-다시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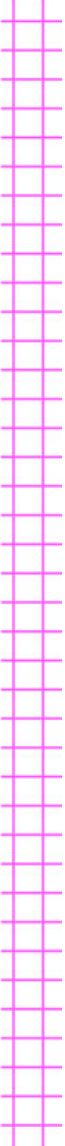



인천문화포럼은

인천 문화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합니다.

지역 문화를 가꾸려는 사람들이
공감,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넓혀갑니다.

민과 관을 잇는 가교 역할로
인천 문화의 역동성을 높입니다.



포럼 참여자

권근영, 권기영, 권은숙, 김종현, 박정하, 손동유,
안희석, 우사라, 윤미경, 이강민, 이민하, 이종범,
임승관, 전승용, 전효정, 차광윤, 채은영, 최열, 한상정

진행

인천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손동혁, 이현식

행정지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정윤희, 최유리

후원
인천광역시



운영
인천문화재단



10월에
2021 인천문화포럼의
자세한 이야기를
공개합니다.